

책읽기에서 경험하는 '사람냄새'

인간적 고뇌가 담긴 글이 주는 감동

鄭鎮弘

서울대 교수 · 종교학

나는 불행하게도 글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철없음이 그 까닭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철들이 내게는 수월하지 않다. 시를 읽고 느끼는 감동과, 산문이나 소설을 읽고 느끼는 감동이 내게 다르지 않고, 게다가 이른바 학문적인 논문이나 언론의 칼럼을 읽을 때의 그 경험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 글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꼴을 하고 있든, 내게 그것들이 이른바 글읽기의 경험으로 지니지는 한, 그 글의 틀의 다름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되짚어 지금 읽은 것은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하는 구분 때문에 그 경험이 달리 변형되어 지니져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를 읽을 때의 태도와 소설을 읽을 때의 태도, 그리고 논문을 읽을 때의 태도와 산문을 읽을 때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부닥칠 때면 내 철없음이 무척 당혹스럽다. 그러한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주장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문법'으로 사물을 설명하는 산문을 쓴다든가 산문의 '논리'로 시를 쓴다면 그 시는 시일 수 없을 것이고 그 산문은 산문의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학술논문이 신문의 칼럼과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글들을 읽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마땅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글이든 글을 부닥쳐 읽을 때면 그 글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만이 분간될 뿐, 그 글이 어떤 틀의 글인지는 도무지 관심되지 아니한다. 사람 냄새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이를테면 아주 딱딱한 학술논문을 읽을 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시나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다.

그런데 흔히 문학에 속한 글들은 사람 냄새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글들을 읽어야 하지만, 학술논문이나 논설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 읽음의 기준을 사람 냄새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태도에다 두고 읽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개념의 명료성, 논리의 일관성, 실증적인 자료분석, 방법의 적합성, 해석의

당위성들이 요청되면서 그러한 학문적인 글들은 될 수 있는대로, 아니면 아예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야 완벽한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글에서 사람 냄새를 기대하는 글읽기 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훌륭한 논문들이나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저서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기막힌 지성과 번뜩이는 천재성과 짝짝 놀랄 정교함이 철철 넘쳐 있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소름 끼칠 냉혹함이 있다. 하기가 지적 호기심만으로 그러한 글을 읽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긴장과 호기심과 기묘한 쾌감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패배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 그것은 마치 게임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등생으로 내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즐거운 경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같은 범인에게는 그것이 그리 답답할 수가 없다. 좀 모자라도 좋으니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모습으로 안타깝고 끈질기게 자기에게

참으로 훌륭한 논문들은 사람냄새를 흠뻑 풍기면서도 학술적인 글들임을 확인하게 됐다. 지적 오만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시한 분석을 용납치 않고, 사고의 깊이가 엄청나면서도 좁은 사색이나 얇은 문제의식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책읽기에서 사람의 냄새를 경험하게 된다.

정직하면서 몸부림하는 모습이 그 글에 담겨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읽을 수 있을 때의 감격을 말할 수 없이 귀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나는 참으로 훌륭한 논문들은 그러한 고뇌, 곧 사람 냄새를 흠뻑 풍기면서도 이른바 학술적이라는 제반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글들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이 어느 책이라고 꼭 지적하기는 쉽지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않다. 다만 그러한 글들은 지적 오만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시한 분석을 용납하지 않고, 온갖 논리나 주장들을 드러나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주장이나 논리들이 거의 있을 수 없으며, 사고의 지평이나 깊이가 엄청나면서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직 좁은 사색이나 얇은 문제의식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다 읽고 나면 분명한 주장이 선명하게 깔려 있는데도 여전히 다하지 않은 많은 사색의 여운들을 남겨 놓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책을 읽고 나면 그것이 이른바 '지독한' 학술서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의 시를 읽었을 때나 소설을 읽었을 때의 감동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살게 한다. 내 투로 말한다면 그러한 책읽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름아닌 사람의 냄새인 것이다.

자연히 이러한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니 한편의 시에서도 열권의 학술서적이 다 담지 못하는 인식의 내용을 접하기도 하고, 지극히 현학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을 학술서적이거나 논문을 통해서도 한편의 기막힌 시적 감동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점점 내 글읽기는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른바 학문적인 관심에 상응하는 글들만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마구 말하면 닦치는 대로 '글들'을 읽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비록 사람 냄새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내 글읽기는 그것이 어떠한 틀의 글이든간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보다는 왜 그러한 글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학문 이전에 학문을 자극했던 비학문적인 인간적인 정직한 고뇌를 그 학문적인 서술에서 찾아내고 싶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글 속에 담긴 인식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금세 나로 하여금 마치 무의미한 비생산적 노동을 강요받을 때와 같은 피곤함과 역겨움을 겪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다.

하기가 어떤 글이든 그렇지 않은 글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나는 단언컨데 그렇지 않은 글들이 지천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재주가 철철 넘치는 시, 기교가 범람하는 소설, 엘리트즘에 폭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논문들, 감각이 써내려가는 논설들은 우리 주위에서 과소비만큼이나 유행하고 있지 않은가.

한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온다는데 다가올 새해에는 나같은 철없는 글읽기도 수용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학문의 풍토에도, 또 독서의 장에서도 자연스럽게 펼쳐지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해본다.